

‘화이트판 돈 멜초’ 아멜리아...100일의 기다림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28

100일. 화이트 와인의 완벽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간.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가장 좋은 시기에 수확할 때까지 말이다.

100일간 포도나무가 제 할 일을 다 했다면 와인 메이커의 역할은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전부다. 차가운 해풍과 사막을 동시에 마주한 극한의 환경이 선사한 미네랄과 생동감이면 충분하다. 돈 멜초와 같이 칠레를 넘어 전세계 화이트 와인의 아이콘을 꿈꾸는 ‘아멜리아 사르도네’다.

칠레 콘차이토로(Concha y Toro)의 총괄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셀로 파파(Marcelo Papa)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참가 등 인위적인 개입을 최소화하



칠레 콘차이토로 총괄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르셀로 파파가 한국을 방문해 ‘비나 아멜리아’의 설립을 알렸다.

고 산지의 개성을 정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양조 철학”이라며 “기술적인 기교보다는 포도밭 자체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콘차이토로는 칠레 최대 와인 그룹이다. 한국에서 ‘국민와인’으로 잘 알려진



왼쪽부터 아멜리아 사르도네 2023년, 2024년 빈티지. /아영FBC

‘카시어로 델 디아블로’와 칠레 와인의 위상을 바꾼 ‘돈 멜초’ 등을 보유하고 있다. 테크니컬 디렉터가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 콘차이토로 그룹의 와인 양조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마르셀로의 이번 방문은 ‘비나 아멜리아

아(Vina Amelia)’의 독립을 알리기 위해서다. ‘비나 돈 멜초’의 독립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돈 멜초가 칠레 레드 와인의 위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독자적인 브랜드로 차별화하기 위해 2019년에 비나 돈 멜초가 생겨났다.

그는 “앞으로 비나 아멜리아는 사르도네와 피노누아 생산에 집중해 양조 전문성을 극대화하겠다”며 “아멜리아를 글로벌 화이트 아이콘으로 키워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돈 멜초와 같이 아멜리아 역시 독보적인 테루아를 앞세웠다. 칠레 최북단인 리마리 밸리에서도 케브라다 세카(Quebrada Seca) 빈야드다. 태평양에서 불과 23km 거리인 동시에 아타카마 사막 끝자락인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이다. 차가운 해풍과 함께 특유의 짙은 해무를 일컫는 카만차카의 영향도 같이 받는다. 토양은 프랑스 부르고뉴와 비슷한 석회질이 포함된 점토질이다.

마르셀로는 “넓지 않은 지역이지만 토질에 따라 세분해 재배하고 있으며, 총 18

개 구역 중 3개 블록에서 자란 사르도네이만 아멜리아 양조에 사용한다”며 “붉은 토양에 탄산칼슘의 파편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와인에 긴장감과 신선함을 준다”고 전했다.

아멜리아 사르도네는 100% 순수하게 즐기며 숙성한다. 본연의 산도를 가리지 않기 위해 잿산 발효는 하지 않는다.

2023년은 평년보다 좀 추웠다. 개화부터 수확까지 105일 걸렸다. 포도가 과하지 않게 익었고, 와인은 깔끔하고 정교한 풍미를 얻었다.

반면 2024년은 더운 해였다. 그래서 개화부터 수확까지 99일이면 됐다. 잘 익은 과실미가 와인에 그대로 반영됐고, 강수량이 적어 응축된 풍미와 힘 있는 사르도네다.

마르셀로는 “2023년과 2024년은 기후로는 크게 차이가 나는 해였지만 와인에서는 관통하고 있는 아멜리아적 특징을 느낄 수 있다”며 “한식에도 해산물 요리가 많은데 완벽한 페어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메가박스, 월드컵 등 콘텐츠 다변화 속도

북중미 월드컵 빅매치 극장 상영

메가박스가 월드컵 생중계와 공연 상황, 일본 화제작 등을 앞세워 극장 콘텐츠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가박스는 단독 상영 브랜드 ‘메가온리(MEGA ONLY)’의 6월 라인업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라인업에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생중계를 비롯해 쇼미지킬 실황 영화, 일본 영화, 버추얼 라이브 공연 실황 등이 포함됐다.

가장 주목되는 콘텐츠는 북중미 월드컵 경기 생중계다. 메가박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경기를 포함한 주요 빅매치를 극장에서 상영한다. 오는 6월 12일 체코전, 19일 멕시코전, 2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전 등을 대형 스크린과 극장 사운드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극장업계가 콘서트와 스포츠 중계 등 이른바 ‘알터콘텐츠(Alternative Contents)’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메가박스 역시 월드컵을 통해 집관과 차별화된 현장형 관람 경험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공연 실황 콘텐츠도 강화했다. 6월 4일 개봉하는 ‘드림하이: 쇼미지킬 온스테이지’는 드라마 ‘드림하이’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쇼미지킬 ‘Again 드림하이’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멀티카메라 촬영과 영화적 편집 기법을 적용해 공연 현장의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세븐, 선예, 강승식 등이 출연한다.

일본 콘텐츠 수요 공략에도 나선다. 메가박스는 24일 사카모토 유지 작가의 신작 영화 ‘짝사랑 세계’를 단독 상영한다.

영화는 세상과 이별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성장 판타지물로, ‘괴물’ 각본으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사카모토 유지와 ‘꽃달걀 같은 사랑을 했다’의 도이 노부히로 감독이 협업한 작품이다.

버추얼 아이돌 팬덤을 겨냥한 콘텐츠도 준비했다. 27일 개봉하는 ‘볼택션 1st 라이브 다니미 볼트’는 일본 버추얼 라이브 그룹 니지산지 소속 유닛 볼택션의 첫 오프라인 공연 실황을 담았다. 메가박스는 대형 스크린과 입체 음향을 통해 현장감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영화 관객 감소와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에 대응해 공연·스포츠·게임 등 비영화 콘텐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며 “메가박스의 ‘메가온리’ 역시 영화관을 단순 상영 공간이 아닌 복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 라인업 공개

극장 차별화 콘텐츠 ‘롯데시픽’ 맘보 점보·노트북 등 개봉

롯데시네마가 6월 극장가를 겨냥해 애니메이션과 로맨스, 게임 IP 기반 작품, 공포영화까지 아우르는 단독 개봉 라인업 ‘롯데시픽’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롯데시픽’ 라인업은 극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 콘텐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상업영화 중심의 기존 극장 편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와 팬덤 기반 콘텐츠를 확대하며 관객 접점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관객과 만나는 작품은 오는 6월 3일 개봉하는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맘보 점보’다. 덴마크 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마법 버섯을 먹고 거대해진 아기 하마의 이야기를 그린다. 독특한 상상력과 밝은 분위기의 스토리, 국내 성우진 더빙과 OST를 앞세워 어린이·가족 관객층을 겨냥했다.

이어 6월 4일에는 로맨스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노트북’이 재개봉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라이언 고슬링과 레이철 맥아담스의 젊은 시절 모습을 다시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극장가에서 클래식 명작 재개봉이 꾸준한 흥행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향수 소비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읽힌다.

게임 IP를 활용한 콘텐츠도 포함됐다. 6월 14일 개봉하는 ‘DEAR MY HERO’는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첫



롯데시픽 라인업. /롯데컬처웍스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시그너스 기사단’ 신병 아이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으로, 약 30분 러닝타임으로 구성됐다. 오랜 팬층을 보유한 게임 IP를 극장 콘텐츠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팬덤 기반 콘텐츠 실험 사례로 주목된다.

공포 장르 팬들을 겨냥한 작품도 준비됐다. 6월 24일 개봉하는 ‘패신저’는 ‘체인도’, ‘트루 사냥꾼’ 등을 연출한 안드레 외브레달 감독의 신작 서스펜스 공포 영화다. 예고편 공개 이후 온라인상에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장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6월 극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독 개봉 라인업을 구성했다”며 “오직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 경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허희경, 첼리스트 박찬영과 듀엣곡 발매

새 디지털 싱글 ‘얼마나 좋을까’ 오는 7월 단독공연 개최 예정

싱어송라이터 허희경이 독보적인 음색과 깊이 있는 첼로 선율이 어우러진 새 싱글을 발표하며 초여름 가요계에 새로운 감성을 더한다.

소속사 (주)문화인은 28일 정오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얼마나 좋을까 (feat. 박찬영)’를 발매했다. 이번 신곡은 연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풋풋한 설렘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섬세한 가사로 풀어낸 곡이다. 이번 싱글은 허희경의 산뜻한 음색에 첼리

스트 박찬영의 깊은 저음 연주와 목소리가 더해진 듀엣곡 형태로 완성됐다.

여기에 실력과 뮤지션 제휘와 이의광이 작곡 및 편곡에 참여해 재치(Jazzy)한 무드를 연출했으며, 따뜻한 플루트 선율이 조화를 이뤄 한층 포근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지난 2021년 싱글 ‘아무것도 상관없어’로 데뷔한 허희경은 ‘김철수 씨 이야기’, ‘그렇게 살아가는 것’ 등 진출한 서사를 담은 곡들로 리스너들의 공감을 얻어왔다. 올해 초 싱글 ‘이런 사람 되어버렸네’를 발매하는 등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곡 발매와 더불어 허희경은 오는 7월



싱어송라이터 허희경. /문화인

4일과 5일 양일간 서경대학교 메리홀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고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

메트로 한줄뉴스



- ▲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익구,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사진 뉴스스
- ▲ 종합특검, 채상병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 단장 조사

- ▲ 건물주 몰래 계약 관리하다 수천만원 빼돌린 업자 징역 1년
- ▲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양대노총 “생존·안전 위한 외침”

- ▲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피해자에 무형의 처분...43년만
- ▲ 교육부 “수학여행서 사고나도 중과실 아니면 교사 책임 안물어”